



대한민국 물류 대동맥으로 성장할 광양컨테이너부두는 현재 16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17개 선석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가운데 건물은 업무지원시설인 월드마린센터이며, 부두 뒤 왼쪽이 오는 6월 완공되는 서측배후단지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양항 물동량 늘리려면 텅 빈 부두 뒷 땅 기업들 채워야

## 일본 등 글로벌 기업 유치 필수적

광양항의 물동량을 늘려 동북아 물류 중심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배후단지 개발이 필수적이다. 배후단지 입주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펼치면서 광양항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인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양항은 대한민국의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 오는 6월 광양항 서쪽 배후단지(193만㎡) 조성이 완료되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덕분에 광양만을 가로지르는 이순신대교 등 인근 광역 교통망도 완성됐다.

16개 선석을 58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광양항은 장기적으로 33개 선석을 개발할 계획

이다. 광양항은 미주 아시아를 잇는 주 간선항로 위에 자리해 지리적으로 입지조건이 좋다. 또 깊은 수심으로 1만5000TEU급 이상 대형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이 가능해 국제 물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중국 교역이 줄면서 연간 물동량은 총 처리 가능 물동량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1~4분기 전국 항만물동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증가했지만 광양항은 3.4% 감소한 52만6000TEU였다.

무엇보다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수출입 물동량이 준데다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실는 환적 물동량마저 줄어들어 광양항의 전체 물동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항은 목재 수출과 섬유류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 올 1~4분기 물동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증가했다.

배후단지는 항만 물동량과 직결된다. 부산항의 경우 26개의 일본 업체들이 국내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배후단지에 입주했고, 13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배후단지가 활성화됐다. 배후단지 활성화로 환적 물량도 많아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처리 세계 2위 항만으로 성장했다.

또 지진 여파로 인한 '전력난' '환경문제'와 '엔고' '높은 법인세' '대외개방방지' '노사문제' 등 6중고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들이 앞다퉈 부산항 배후단지로 몰리고 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는 현재 17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모두 국내 기업이라서 물동량 증가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료를 앞둔 서측 배후단지에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물동량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항만 배후단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글로벌기업을 항만 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내놨다. 이 전략에 따르면 광양항은 주변의 철강·화학 단지와의 연계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련 업체와 원두커피 가공 업체 등을 유치하게 된다.

광양항 관계자는 "광양항 물동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배후단지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일본 기업 등을 배후단지에 유치하면 지역 경제 발전과 광양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소량화물 경제 효과는 대량화물의 50배

물류 전문가들은 LCL(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이 FCL(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해서 수송되는 대량화물)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FCL화물의 수출 경로는 단순 운송과 선적에 그친다. 반면 LCL화물은

운송·집하·분류·선적 등 선적까지의 경로가 복잡하다. 그만큼 연관 효과가 높게 된다.

FCL화물은 수출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장 내에서 컨테이너에 담아 기차·트레일러 등으로 항만까지 운송한 뒤 선박에 선적한다. 컨테이너가 공장에서 항만까지 이동해 실리는

것이다. 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돼 운송과정과 작업이 단순하다.

하지만 LCL화물은 여러 수출업체들이 소량의 화물을 모아 트레일러 등으로 항만까지 옮긴 뒤 항만 물류 창고에서 다시 수출지역별로 분류해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는 창고와 필요하고 운송사, 하

역사, 관세사, 금융·보험사, 선사 등 항만운송 관련한 부대사업이 필요하다. 그만큼 일감이 늘어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국제물류센터의 LCL화물 취급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2014년 570억원, 2016년 1140억원, 2018년 2273억원으로 내다봤다. 고용 유발효과도 2014년 100명에서 2016년 201명, 2018년 401명으로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세계박람회 D-8

이것만은 꼭 보완하자

# 박람회 흥행·지역 발전 두마리 토끼 잡아야 성공

##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얼마나 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최대 1082만 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고, 생산유

성공으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열린 박람회가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보고서는 2005년 일본 아이치 만국박람회,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국제박람회, 2010년 중국 상하이 세계박람회의 행사 전후 지역 발전 변화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이치는 행사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지역 발전 전략과의

교훈은 박람회의 흥행 성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인 연관이 떨어진다는 것과 개막전부터 박람회와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하거나 국제 관광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속속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광역 도로망과 인근의 여수산단, 광양산단, 대불산단, 광양항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스페인의 가장 낙후된 도시였던 사라고사가 박람회 이후 국제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관광지로 급부상한 것처럼, 여수박람회를 통해 광주·전남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상품 개발·홍보하는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원장은 "단순히 관람객을 맞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박람회와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을지, 연구소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도로망·인근 산단 연계 경제 효과 창출

## 광주·전남 국제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게

발 효과 12조2000억원, 부가까지 5조 7000억원, 고용창출 8만명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각 국에서 치러진 세계박람회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에는 도움이 컸지만, 경제 규모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박람회가 여수를 넘어 광주·전남지역 발전과 경제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최근 여수지역 숙박업계에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관람객이 몰려 이미 숙박업소들이 동나야 하는데도, 호텔을 제외한 중·소형 숙박업소에는 예약 문의가 드물다. 박람회 입장권 예매율이 저조하고, 하루 만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당일치기' 관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이순신대교 개통 등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된 남해 등 경남지역에서의 숙박을 계획하는 관람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여수에 머물면서 선물도 사고, 식당도 이용하며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열렸던 각종 박람회가 별다른 경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여수 세계박람회 흥행을 넘어 진정한

연계성이 부족해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였다. 또 사라고사는 흥행에도 실패하면서 지역 총생산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상하이는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경제성장이나 지역 주민의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 박람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밥값 한 번 했군

# 대한민국 대표 명품한우 레스토랑!! 영암매력한우 삼호 명품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할인판매를 시작합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매력을 추구하는 영암매력한우!

영암매력한우는 대한민국 이 땅위의 자존심, 한우를 지키는 자부심에서 시작합니다.



2010~2012년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획득!



2008. 07. 04 전라남도지사 품질 인증 획득!



2008~2012년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획득!

할인행사기간 : 2012. 05. 01~05. 31까지

### 할인품목

품명	판매가격	할인행사가격	비고
사골	55,000원	50,000원	
우족	28,000원	25,000원	
꼬리	110,000원	100,000원	
국거리	28,000원	20,000원	
불고기	28,000원	20,000원	
사태	28,000원	20,000원	



영암매력한우

NH NongHyup

삼호농협·덕진농협

www.dukjinnh.com

영업시간 10:00 ~ 22:00

예약·주론 061.464.0085~0086

FAX 061.464.0087

\*전화주문시 택배배송 (배송비 별도)